
SW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분석

노규성*

A Study on the Analysis of Power of Job Creation of SW Industry

Kyoo-Sung Noh*

요 약 오늘날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정책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책 기반인 일자리 통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확한 일자리 통계와 일자리 창출역량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 중 최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SW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일자리 통계의 현황과 과제의 점검하고 일자리 증가 추이와 일자리창출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SW산업, 일자리 창출력, 고용유발효과, 산업연관표, 일자리 통계, 일자리 정책

Abstract These days, job creation affair is the largest national affair. Although, this government has been persevering in one's efforts, job is not created easily. One of the reasons is the problem of statistics of the job and policy errors by this wrong statistics. This article's purposes are to examine the problems of statistics of the job as base of existing policy, and to analyze the power of job creation of various industri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light up job creativity of SW industry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area in the job creation.

Key Words : SW industry, Power of Job Creation, job induction effect,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statistics of the job, job policy

1. 서 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5년간 매년 60만 개씩 300만개 일자리를 확충해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인 4%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약(公約)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이는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2]. 그러나 이는 MB 정부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MB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정보화예산은 대폭 삭감한 대신 한시적 현장 노동자 몇 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특히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대기업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대기업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선택했고 해외직접투자(FDI)는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4%인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로서 직접투자의 순수출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정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국내 FDI 유출 급증에 따른 일자리 감소효과는 66만개에 다다른다[3].

이런 실정 등으로 인해 졸업자는 느는데, 신규일자리 늘지 않아 2011년 청년 실업률은 8.9%로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대졸 실업자 수는 2007년 27만 6천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34만 6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8]. 중장년 일자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0년도부터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되었다. 향후 10년간 2~30만 명씩 은퇴하면 수백만 명이 고용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재취업 기회도 별로 없고, 자영업 등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논문접수: 2012년 6월 29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7월 21일

으로 다시 시작하자니 영세 소상공인 영역과 골목 상권을 대기업이 차지하기에 이르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노년(고령)층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어떤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삽자리 일자리’이거나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속칭 ‘알바’일자리가 대부분이다[1]. 이미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누구도 이들의 일자리를 챙기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정책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자리 통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확한 일자리 통계와 일자리 창출역량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 중 최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SW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자리 통계의 현황과 과제의 점검하고 일자리 증가 추이와 일자리창출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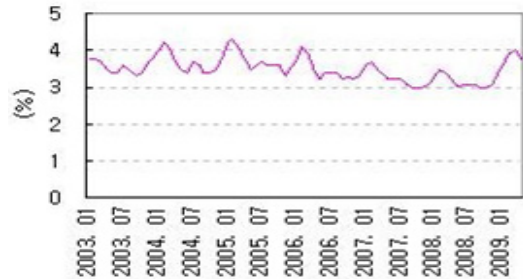
2. 일자리 통계 현황과 과제

2.1 일자리 통계 현황

그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률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3~4%대로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 사회는 청년을 포함하여 전 세대에 걸쳐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태도 말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사실상 실업률’이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는 주요국의 실업률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즉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률은 3.0%인데 비해 프랑스는 10.0%, 미국은 8.8%, 독일은 5.9%, 호주는 5.1%, 일본은 4.4% 수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6.3%인데 비해 프랑스는 23.2%, 미국은 17.0%, 독일

은 10.0%, 호주는 10.8%, 일본은 8.0% 수준이다[9]. 사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의에 빠진 청년의 수가 급증하고 소일거리라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이슈인데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 통계치를 보인 것은 우리의 일자리 통계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출처 : 김광수,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작성, 2010)



[그림 2] 주요국의 실업률 비교
(자료: 통계청, 한국, 미국 2011년 9월 기준,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2011년 8월 기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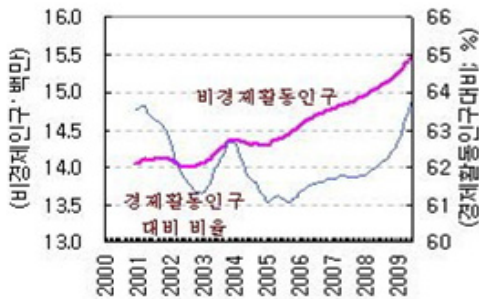
2.2 일자리 통계의 허구와 문제점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실업률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자리 정부라고 외치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단순히 ‘쉬고 있다’고 답하는 사람들,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할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비경제활동인구*

* 통상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활동 가능인구라 하며 이 중에서 취업 능력과 의사를 동시에 갖

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1].*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되어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제로 실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실업자에서 제외시켜 버렸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치는 사실상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 통계가 아닌 것이다.



[그림 3]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출처 : 김광수,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작성, 2010)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자.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인구 등을 말하며, 취업자 중에도 사실상 취업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주당 36시간(혹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가 그들이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는 2008년말 약 130만명 이상이고, 구직단념자는 2008년말 약 13만명 정도이다. 또한 취업준비인구는 2008년말 약 40만명 수준이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는 2009년 3월 62만명 정도에 이른다.

이상의 통계에서 제외된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여 국민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을 추정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체감 실업률이라 함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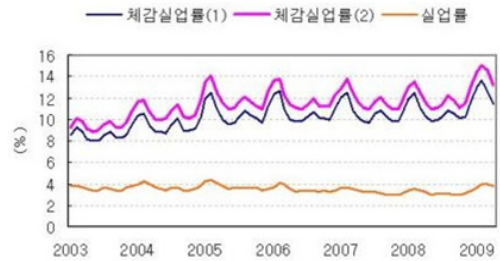
준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생산 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인,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네이버 백과사전).

* 정부에서 실시한 실업률 통계는 전국의 3만3천 가구에 대한 샘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여부, 구직활동 여부 등에 대한 단순한 질문지법을 통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응답자와 취업준비자, 그리고 36시간(또는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를 더한 숫자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1].

이상의 사실상 실업자를 기준으로 추정한 체감 실업률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초 10% 미만이었다. 이는 정부의 실업률 통계치와 큰 차이를 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봐왔듯이, 정부의 통계치는 사실상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 기반의 일자리 대책 역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정부의 통계는 사실상 실업률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대책도 바로 잡힌 사실상 실업률 통계와 분야별 일자리 창출역량을 기반으로 마련되도록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체감실업률 추정 추이[†]

(출처 : 김광수,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작성, 2010)

3. SW산업의 창출력 분석

3.1 SW산업 자체의 일자리 창출력

3.1.1 산업별 일자리 추이 분석 방법

우리나라 일자리 수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국사업체조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국사업체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직종별로 사업체 수, 종업원 수, 기업규모 등을 수록해 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토대로 작성된

[†] 여기에서 체감실업률(1)은 추가 취업희망자 가운데 18시간 미만 취업자로 한정된 경우, 체감실업률(2)은 36시간 미만 취업자로 확대한 경우를 말한다.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자료를 통해 전산업과 SW산업의 일자리 추이를 분석하였다. 즉 전산업의 일자리 추이와 SW산업의 일자리 추이를 분석한 후 두 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SW산업 자체의 일자리창출력을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W산업의 자체 일자리 추이 통계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2008년에 제9차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SW산업의 유형을 발췌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구분된 유형 중 SW산업의 인력을 엄밀하게 구분·산정하기 위해 <표 1>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SW산업 유형에 해당하는 인력을 합산하여 통계로 사용하였다.

<표 1> 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 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1 뉴스제공업 6399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10 뉴스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63999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5 수리업	951 기계 및 비리수리업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0.12)

3.1.2 산업별 일자리 추이 비교분석

통계청의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일자리 증가추이를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전산업 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2.9%이다(표 2 참조).

<표 2> 전산업의 연도별 일자리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전산업	증감률(%)
2009년	16,818,015	3.3
2008년	16,288,280	2.2
2007년	15,943,674	3.3
2006년	15,435,766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7, 200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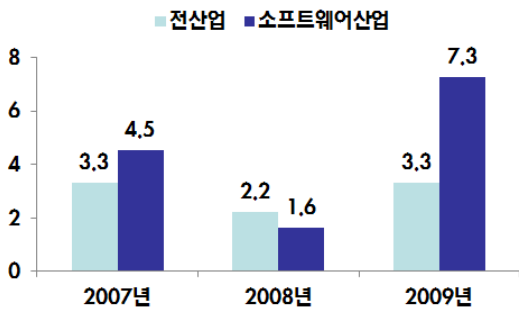
이에 비해 SW산업의 연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약 4.5%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 추이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출현에 따른 모바일 프로그램 인력의 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SW산업의 연도별 일자리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SW산업* **	증감률(%)
2009년	228,934	7.3
2008년	213,413	1.6
2007년	210,003	4.5
2006년	200,901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7, 2008, 2009)

따라서 전산업 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 2.9% 대비, SW산업 연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약 4.5% 정도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전산업과 SW산업의 일자리 증가율 비교

3.2 SW산업의 고용유발효과

3.2.1 고용유발효과의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 자체의 일자리 증가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추정한다. 그러나 통상 일자리창출력은 어느 특정 산업 자체의 일자리 뿐 아니라 그 산업의 생산활동에 의한 부수적 일자리 창출, 즉 고용유발효과를 통해서도 부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란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생

산활동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10]. 따라서 고용유발효과가 높다는 것은 그 부분의 생산활동이 늘어날 때, 다른 부분으로의 고용이 유발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W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행렬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를 말한다[10]. 이와같은 산업연관표에서 고용유발계수행렬의 유도 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산업연관표를 행렬(Matrix)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X = AX + Y \tag{1}$$

- X: 총산출액 열벡터
- A: 투입계수행렬
- Y: 최종수요 열벡터

(1)식을 X에 대해 풀면,

$$\begin{aligned} X - AX &= Y \\ (I-A)X &= Y \\ X &= (I-A)^{-1} Y \end{aligned} \tag{2}$$

(2)식에서 $(I-A)^{-1}$ 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산업별 투입된 노동량을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고용투입계수 L^V , 산업별 총산출액 열벡터 X, 산업별 고용자 수 열벡터 L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V X = L \tag{3}$$

- L^V : 고용 투입계수 대각행렬
- X: 산출물 열벡터
- L: 고용자 수 행벡터

여기에서 (2)식을 (3)식에 대입하면 (4)식이 유도된다.

$$L^V(I-A)^{-1} Y = L \tag{4}$$

*** SW산업의 일자리 수는 앞의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SW산업 유형별 분류표 중 세세분류에서의 SW산업의 일자리(고용) 수를 합산한 것으로 실제 SW산업 종사자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는 2012년 현재 약 100만명 정도가 SW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식에서 $L^V(I-A)^{-1}$ 항을 고용유발계수(행렬)이라 하고, 고용유발계수행렬의 행 합계는 모든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변화로 인한 특정 산업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유발효과를 설명하게 된다[6].

3.2.2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비교분석

이상에서 정리한 고용유발계수 및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산업의 최종수요 열벡터(Y) 100만원어치씩의 증가로 인한 각 산업별 고용유발효과(L)는 농림수산업이 0.86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SW산업이 0.3996명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이 0.3064명, 제조업이 0.202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최종수요 400만원어치의 증가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1.7689명으로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 산업별 고용유발 효과

구분	2005년 고용유발효과
농림수산물	0.8610
제조업	0.2020
서비스업	0.3064
SW산업	0.3996
전산업	1.7689

(출처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9를 참조하여 가공)

결국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100만원당 0.33996으로 농림수산업 0.8610, 제조업 0.2020, 서비스업 0.3064와 비교해 볼 때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적 시사점

4.1 일자리 창출력 분석 결과 종합

이상의 일자리 창출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SW산업의 연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약 4.5%로서 전산업 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인 2.9%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100만원당 0.33996으로 제조업의 0.2020, 서비스업의 0.3064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SW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 보다 일자리 증가 추이나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의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그동안 IT산업으로 총체적인 범주에서 바라보았지만, IT중에서도 HW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자동화를 추구해야 하는 반면 SW는 기술인력이 투입되어야만 생산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최근 금융위기 극복 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비영리단체인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협회가 펴낸 '2012 실리콘밸리 인덱스' 보고서[5]에 따르면, 2011년 실리콘밸리 지역 일자리는 4만2000개가 생성되었다. 이는 지난 2010년 8500개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IT부문을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디바이스, 인터넷 등으로 나뉜 전체 고용률이 5.9% 증가한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13.1%가 감소해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와같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선진 기업들이 최근 약진을 계속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SW와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력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앞서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나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서 SW산업 육성에 정책적 역량과 국가 재원을 한층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SW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든 세대가 일자리를 통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먼저 청년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들이 빠져나간 서비스 일자리를 중장년, 노년층이 채우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혁명의 진행과정을 볼 때 당분간 SW와 콘텐츠가 중심축을 형성할 것이고 이를 위한 SW인력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하며 인력이 최대자원인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SW산업에 눈을 돌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정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재원의 투자대상을 SW산업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여야 할 절실한 상황이다. HW는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대세이므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수한 인력만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SW산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인 SW산업, IT융합 신산업 육성에 집중할 때인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의 심각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를 찾고 이에 집중해야하는 정책 전환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SW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력은 물론 일자리 유발효과 측면에서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SW산업의 가능성을 검증한 측면도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더구나 MB정부 출범 이후 SW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및 경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아이폰과 미국의 SNS 비즈니스가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어 국내 SW생태계의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로서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의 우수성은 정부의 정책을 SW산업으로 집중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과 통계 기반의 이론적 연구로서 현장의 실증적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SW산업 현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과제에 대한 세심한 조사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SW산업계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찾는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SW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의 일자리창출 및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

조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의 장기적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김광수(2012), '실업률 통계부터 엉망인데 일자리정부라니', 김광수컬럼, 김광수경제연구소
- [2] 노규성(2012), SW의 일자리창출 역량 분석, 2012 국가IT미래비전포럼 제1차 자료
- [3] 조태근(2012), 24% vs 3%, 대기업 투자 늘어도 고용 정체된 이유, 민중의 소리, 현대경제연구원
- [4] 지식경제부(2011),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 [5]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협회(2012), '2012 실리콘밸리 인텍스' 보고서
-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0.12
- [7] 통계청(2006~2009), 전국사업체조사
- [8] 통계청(2011), 대졸실업자 증감추이
- [9] 통계청(2012), 한국, 미국 2011년 9월 기준,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2011년 8월 기준
- [10] 한국은행(2007), 2003년 산업연관표
- [11] 한국은행(2009), 2005년 산업연관표

노 규 성



- 1984년 한국외대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5년 한국외대 대학원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학 박사)
- 2003~2010 中國 延邊科學技術大學 兼職教授
- 1997~현재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4~현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 2010~현재 스마트융합학술전국연합 의장
- 2012~현재 부활IT강국운동연합 상임대표
- 관심분야: 디지털정책&스마트융합, 디지털경제민주화
- E-mail: ksnoh@sunmoon.ac.kr